

기획연재

위기의 대학원

도약의 계기로 삼자

대학주보는 이번 학기에 '위기의 대학원, 도약의 계기로 삼자' 연재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우리학교 대학원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총6회에 걸쳐 살펴보기로 했다. 우리학교 대학원이 안고 있는 다양하고 다단한 문제들에 대해 차근 차근 고민해보는 동시에, 옆 나라 일본의 대학원은 어떤 모습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는지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현실과 비교점을 해보도록 하겠다.

연재순서

- ① 총론-대학원의 위기
- ② 장학제도
- ③ 연구지원 시스템
- ④ 커리큘럼
- ⑤ 학생선발 시스템
- ⑥ 대학원 조직문화

학술지 게재장학 반토막, 이공·의학 계열은 수혜제외

(2014-1학기부터 서울캠)

연재기획③ : 연구지원 시스템

최승욱 기자 dotori14@khu.ac.kr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조적인 지식 창출을 위해 독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연구 역량을 연마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우리학교 대학원의 교육목표 중 하나다. 행간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학교 대학원은 ‘연구 중심 대학원’을 지향하고 있다. 학부와 달리 단순히 ‘학습’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자신만의 ‘연구’를 통해 더 넓고 깊은 학문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런 목표는 타당하다고 하겠다.

대학원생의 연구를 위해 대학원이 지원해야 할 것은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다. 시설과 기자재 같은 ‘인프라’부터, 연구의 근간이 되는 우리학교만의 ‘철학’까지 형태와 종류 역시 다양하다. 이중 가장 실질적인 문제인 ‘연구비’를 살펴보자.

대학원 연구 활동은 교수와 대학원생이라는 두 개의 바퀴가 맞물려 움직인다. 이중 한 축인 교수에 대한 연구비 지원의 경우, 일견 부족한 점이 존재하지만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존재한다. 연구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교내 연구교류회 지원사업’, 교수가 외부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형 신규공모사업 신청경비 지원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대학원 차원의 지원제도 전무, “좋은 연구실에 쓸릴 수밖에”

하지만 대학원생의 경우, 대학원 차원에서 제공되는 제도적 지원은 전무한 상태다. 연구비지원은 사실상 각 연구실과 담당교수의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다. 때문에 외부연구과제가 풍부한 연구실의 경우 연구비와 장학금 역시 많아지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사실상 마땅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A학생은 “좋은 연구실에 들어가야지만 연구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반대의 경우에는 제대로 된 연구도 하기 힘들다”며 “더 큰 문제는 한 연구실로 학생이 점점 쏠릴수록, 연구 성과의 격차는 더 벌어진다는 점이다. 악순환에 빠지는 셈이다”고 지적한다.

그나마 교수 간 교외연구비 격차를 다소 좁힐 수 있는 교내연구비 지원도 감소



〈우리학교 대학원 학술지게재장학수혜기준〉

논문등재지 등급		서울캠 지원금액	국제캠 지원금액
인문 사회 계열	SSCI급	100만원	75만원
	한 국 연 구 재 단 등재지	20만원	50만원
	한 국 연 구 재 단 등재후보지	10만원	25만원
	국제 저서	50만원	50만원
	국내 저서	30만원	25만원
이공·의학 계열	SCIE급	40만원	최대 100만원 (25만원+15만원*F)
	SCI급	2014년부터 지급 중단	25만원
	SCIE급		

세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11학년도에 1,961만원이던 우리학교의 전임교원 1인당 교내연구비는 2012학년도에 1,312만원, 2013학년도에 948만원 수준까지 감소했다. 2013학년도에 고려대 980만원, 중앙대 1,052만원, 한양대 1,375만원, 성균관대 1,997만원 등 타대 상황에 비해 크게 뒤지는 셈이다.

물론 이런 구조는 우리학교만의 특수한 상황은 아니다. 국내 대부분의 대학원이 연구실 단위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경우 대학원생이 스스로 연구책임자가 될 기회를 부여받고 있어 차별을 보여준다. 개인이나 팀을 꾸려 연구계획서를 작성해 심사를 통과하면 연구비를 지원하는 ‘석박사과정모형연구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에서는 1년 간 총 3,000만원 한도의 연구비를 개인 혹은 팀에게 지원하고 있다.

연구를 통해 논문에서 성과를 거둬도 대학원생의 학술지게재장학은 절반으로 감소한 상태다. 2012학년도 2학기까지 양 캠퍼스 모두 인문사회 계열 대학원생은

최대 150만원, 이공계열과 의학계열의 학생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13학년도 1학기부터 이런 장학 규모가 축소되면서, 현재 국제캠퍼스 소속 인문사회 계열의 대학원생의 경우 최대 75만원을, 이공계열 및 의학계열의 경우 최대 100만원을 받고 있다.

대학원, 수혜대상 축소 이유 “논문게재 활성화 됐다”

서울캠퍼스 소속 인문사회계열 학생의 경우 최대 100만원을 받지만, 이공계열 및 의학계열의 대학원생의 경우 2014년부터는 등재지 등급에 상관없이 어떤 장학금도 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해 대학원 측은 “설립취지인 대학원생의 국내외의 논문게재 및 발표 활성화가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고, 외부 연구비 등의 기금과 이중 지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혜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이야기한다.

학술지게재장학에 대해서는 학생마다 의견이 미묘하게 달랐다. B학생은 “단순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교수의 논문은 같은 학술지에 게재되도 인센티브가 학생에 비해 훨씬 높다고 알고 있다. 재정 측면에서 교수 대비 훨씬 어려운 입장인 학생의 입장에서는, 작은 차이도 아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장학 액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연구를 하고 안하고가 아니라, 연구성과라는 것은 대학원생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 장학금 지급 여부가 연구성과를 높이는 주요 요소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국제캠퍼스 대학원 총학생회 김성우 부회장의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학교의 현황은 당장 경쟁대학 대학원과 비교해도 “적은” 수준의 인센티브인 것만은 분명하다. 대표적으로 우리학교보다 모교 대학원 진학률이 낮은 중앙대조차 연구자원을 강화하고자 학술지게재장학을 확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령 인문사회계열 기준 IF상위 20% 논문을 똑같이 작성했다고 가정하면, 우리학교 대학원생보다 중앙대 대학원생이 두 배나 더 많은 장학금을 받는 상황이다.

연구비 지원은 각종 ‘연구지원’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이런 연구비 지원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만 운영되고,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다면 결국 대학원의 연구성과를 ‘많은 성과를 내는 일부 연구실’에만 기댈 수밖에 없다.

대학원이 진정으로 ‘연구 중심의 대학원’을 지향하고, 이러한 운영 목표가 대학원 구성원 전반이 공유하는 가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학원생 연구의 관리주체로서, 이런 현실을 방지하지 말고 해결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IF(Impact Fact) : 어떤 잡지에 게재된 논문 한편이 인용된 빈도수로 등재지의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

경희대학교
KYUNGHEE UNIVERSITY

경희대학교 임상영양 연구소
대학생 영양평가 프로그램 서비스 실시

환영회, MT, 펍놀이~ 새 학기부터 세어 나가는 당신의 건강!!
아저도 절음에 기대어 방광하고 있습니까?
건강관리도 스펙입니다!!!

많이 안 먹어도 부쩍 살이 찌나요?
잠을 자도 자도 ~ 졸린가요?
숨이 차서 계단 오르기가 힘든가요?
눈이 건조하고 뻑뻑한가요?

건강에 관한 궁금증들..
해답은 당신의 식탁과 생활 속에 있습니다.

대학생 영양평가 프로그램 등록하시면 체성분 검사, 식사 분석을 통해 전문 영양상담과 다양한 영양정보 서비스를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 구성 (50분 소요)

- 영양관리 설문지 작성
- 체성분(체지방, 근육, 기초 대사량) 측정
- 혈압 측정
- 식사 일기 작성
- 적정 섭취량 및 식사교육
- 식사 구성안 교육자료 제공

▣ 프로그램 신청 & 예약

- 전화 문의 : 02-958-9154 (사전 예약)
- 상담 일자 : 매주 화, 목요일 진행

대학생 영양평가 프로그램 등록하시면 체성분 검사, 식사 분석을 통해 전문 영양상담과 다양한 영양정보 서비스를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 02-958-9154 홈페이지 www.rimn.re.kr
상담실 경희 의원원 한방동관B, 1층

취업진로 프로그램 안내

1. 캠퍼스 리크루팅(기업체 채용설명회 및 면접)

행사명	모집부문	일시	장소
외국인 투자기업 취업전략설명회	취업전략설명회	4.13(월) 13:30~15:00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롯데그룹 채용면담	2015 상반기 그룹 공채	4.13(월) 10:00~17:00 4.14(화) 10:00~17:00	청운관 1층 상담실
롯데그룹 채용설명회	2015 상반기 그룹 공채	4.13(월) 16:00~18:00	청운관 B117호
미래에셋생명 채용면담 (참가학생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충전 예정)	상반기 공채	4.16(목) 10:00~17:00	청운관 1층 상담실
미래에셋생명 채용설명회	상반기 공채	4.16(목) 16:00~18:00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 위 일정은 기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가방법 : 경희대학교 재(휴)학생 및 졸업생 누구나 사전신청 없이 참석 가능(시작 시간 5분전까지 참석)
 ◆ 기타 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취업행사 카렌다를 참고해 주십시오.
 ◆ 채용설명회 관련 출석협조금 지급 : 각 채용설명회 종료 후 현장설명회장 입구에서 발급, 배부

2. 1:1 취업진로지도 맞춤 컨설팅 (취업상담) ◆ 대상 : 경희대학교 학부 재학생, 졸업생
 ◆ 상담 내용 :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법 지도, 면접스킬 지도, 기업 및 직무 분석법, 로스쿨 진학 등
 ◆ 상세 내용

상담유형	컨설팅	일시	장소	신청방법
개인 상담	분야별 컨설팅 4명	월 ~ 금 (각 컨설팅 15분 일정 상이함)	오비스홀 354호~356호 제1법과대학 107-2호 취업진로지원처	종합정보시스템 - '수업/신청/상담, 매뉴에서 신청 (컨설팅신청 일정, 컨설팅 내용 확인 후 신청)
집단 상담	이종구 교수 (취진처 연구실장) 김용권, 대기업 상담	월 18:30~19:30 (매월 1~2회)	내오관 103호	
On Line 상담	한상범 팀장 (취업지원팀)	상시	On Line (hansb@khu.ac.kr) Off Line (취업진로지원처)	

◆ 상담 신청자 의무사항: 취업준비도 검사 참여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하단에 위치) 상담 전, 후 각 1회(총 2회) 참여

◆ 주의사항
 - 상담 당일 날 취소 불가 (상담 당일 전날까지만 가능, 취소시 전화연락)
 -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한 경우 당일 2부씩 프린트해서 지참(필수)

자세한 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http://job.khu.ac.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hujob
연락처 02-961-0167~8, job@khu.ac.kr 위치 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준

서울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2015학년도 1학기 수시 강의평가 시행안내

2015학년도 1학기 수시 강의평가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수업의 질을 높이고 학업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학생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수시평가는 평가문항을 별도로 두지 않으며, 수업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또는 요청사항을 개방형으로 기술할 수 있습니다.

※ 수시 강의평가는 평가자의 인적사항이 교강사 조회화면에 표시되지 않으며, 교강사에 의해 수업진행 참고용으로만 활용됩니다.

1. 수시 강의평가 진행기간 : 2015. 4. 6(월) 10:00 ~ 5. 29(금) 17:00 (6주)
2. 진행절차 : 종합정보시스템 → 수업/신청/상담 → 강의평가 → 수강과목확인 후 강의평가수기 선택
3. 입력화면 설명
 - 가. '강화내역' : 선택한 강화내역을 확인
 - 나. '2평가문항' : 수업운영에 대한 의견 또는 요청사항을 개방형으로 기술하고 '저장'을 클릭
 - 다. '3평가내역확인' : 본인이 일자별로 올리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교강사 확인여부 파악 가능

4. 평가내역 수정
 - 가. 수시 강의평가내용의 수정은 담당 교/강사 확인 전에만 가능함
 - 나. 평가화면에서 본인이 작성한 내역을 클릭
 - 다. 팝업창이 뜨면서 작성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본문 직접 수정
 - 라. 수정완료 후 '수정'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하고 '취급'버튼을 클릭하여 이전화면으로 돌아감
5. 참조 및 유의사항
 - 가. 수시평가는 1강좌당 주 2회(총 16회) 의견개진 가능함이나, 본 수시평가는 평가자의 인적사항이 교강사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 다. 교강사 확인 전에는 본인이 평가한 내역을 '삭제'할 수 있으나, 교강사 확인 후에는 삭제 불가능합니다.

경희대학교 교무처